

커버스토리



줄리온 미첼(Jolyon Mitchell)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기독교미디어학과 교수이다. 케임브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BBC라디오와 BBC월드 서비스에서도 근무하였다. 2011년 부여에서 개최된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에 참석한 미첼 교수를 고신대학교 류기철 교수가 인터뷰하였다.

성경적 미디어로 세상을 밝힌다

졸리온 미첼 교수(Jolyon Mitchell)

☞ 인터뷰 류기철(고신대 교수)

인터뷰 전에 사진을 찍기 위해 화장을 하던 미첼 교수. 자기 평생에 사진 찍기 위한 화장은 처음 한다며,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고 한껏 웃었다.

가정과 신앙 배경에 대해서 소개 해 주시지요.

아버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육학과 교육철학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은퇴하셨어요. 어머니는 배우이면서 연극 디렉터로 일하시는데 미국에서 사시죠. 제게 참으로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신앙심이 깊었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긴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된 건 열세 살부터였던 거 같아요. 여름 방학 캠프나 교회학교,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말예요. 고등학교 때 역사와 종교를 특별히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 갖게 되었어요. 대학교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종교와 미디어에 대한 관심 폭도 커졌어요. 열아홉 살 때 미국을 방문해서 TV부흥목사(Televangelist)를 TV에서 봤어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케임브리지에서는 전통적이고 조직적인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를 미국 TV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것이예요. 처음에는 바른 목적으로 시작했겠지만, 미디어라는 것이 그 다음 세대로 나온 TV부흥목사들을 타락시켰다고 생각해요. 베이커(Jimmy Baker) 목사도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미디어는 교회를, 그리고 교회는 미디어를 이해하는데 서로 도움 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후에 내가 하는 모든 공부와 삶이 그 방향으로 연결되었죠.



미디어는 교회를, 그리고
교회는 미디어를 이해하는데
서로 도움 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후에 내가 하는
모든 공부와 삶이
그 방향으로 연결되었죠.

BBC 월드 서비스(BBC World Service)*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BBC 라디오에서도 잠깐 일했고, BBC 월드 서비스의 영어 서비스 파트가 제가 전담하던 일이었어요. 그때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잘 청취하는 법, 마감 시간 맞추는 것의 중요성, 팀 멤버로서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일하는 법 등 말이에요. 편집에서는 무엇을 글에 포함시킬지 보다 무얼 삭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죠. 지금도 가끔은 글을 기고하는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도움 줄 때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맡아 책임지고 일하고 있지는 않아요.

미첼 교수님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방문하셨죠. 개인적으로 현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주 흥미 있는 질문이네요. 제가 특별히 관심 가지는 부분은 '어떻게 가난을 퇴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000년에 UN이 정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 배가 고프게 잠자리에 들고,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못 갖추고 살아요. 세

계 70억 인구 중 14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 25센트 이하의 생계비로 목숨만 유지하며 살고 있죠. 당연히 그들의 건강이나 자녀 양육, 교육이 어떤 상황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가난을 퇴치하는 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또 쉬운 일만도 아니니, 문제겠죠.

밀레니엄 발전 목표와 연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니버설 교육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에는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인데도 못 가는 아이들이 6천 9백 만 명이나 있어요. 인류 전체를 볼 때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건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매년 9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네 살도 되기 전에 죽어요.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 병인데,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는 아기들도 많아요. 출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술을 받지 못해 엄마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없이 자라게 되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탓에 겪는 이런 참혹한 현실이 세계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큰 도전이라고 봅니다.

*BBC 월드 서비스- 영어 및 세계 각국 언어로 다른 나라들에 방송을 내보내는 BBC 방송사의 한 부서

또 다른 문제는 이 세상이 크게 분리되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종교, 신분, 경제 등의 여러 면에서 인간과 사회, 국가 사이에 큰 장벽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UN에서도 관련된 여러 일을 하고 있어요. 가령 이제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비가 무료입니다. 또한, 방충망을 많이 보급해서 말라리아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이지요. 그 외 에이즈(HIV)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긴 해요. 현재 3,340만 명이 감염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매일 4,500명이 감염되고 있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엄청난데, 사람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개개인의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등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개인뿐 아니라, 각 교회가 뜻을 모은다면 더 많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요.

현재 교수님은 에든버러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계시죠. 근래 지도하신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중 흥미 있는 논문이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시지요?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지도는 매우 즐거워요. 제가 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인터넷/온라인 종교」라는 한 논문을 소개할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교적인 양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에는 세계 최초의 연구로 알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지요.

영화와 관련된 논문들도 꽤 많아요. 세르비아에서 영화가 어떻게 밀로스비치 대통령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를 연구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화 자체가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의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죠. 어떤 논문은 기독교 영화와 비기독교 영화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기독교 영화가 일반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가를 말하기도 해요.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Jesus'라는 영화를 인도 조그마한 마을에서 전도용으로 상영할 때,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쓴 논문도 있어요. 영화 내용이나 제작 방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문화와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한 거죠.

미국에서 자란 한국 학생은 미국 내 한인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분석해서 논문을 쓰고 있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기교보다는 멘토링의 관점에서 접근하더군요.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실제로 듣고, 예배에 참여하며, 설교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말이지요. 또 뉴스 기사들의 보도 방법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교회를 알리려 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주로 보여주려 하죠. 그런데 어찌면 그 반대로 보도되는 게 플러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리이러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세상과 사회에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일반인들에게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싶어요.

근래에 쓰신 책, 『미디어 폭력과 기독교 윤리(Media Violence and Christian Ethics)』에 관해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책임니까? 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 책은 미디어 폭력이라는 주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폭력이라는 부분을 미디어에서 무조건 배제하거나 묻어 버리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때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 상호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뉴스든 영화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디어 폭력은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적인 대응 방식에 관해 쓰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환대(hospitality) 혹은 친선(friendship)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증언(witnessing)의 관점, 세 번째는 예배적 관점입니다. 이곳 한국도 북한의 폭력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제 책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나 이란과 이라크의 전

투였어요. 지금 시대는 모두가 저널리스트이고 리포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요?

기독교 미디어와 세속 미디어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다거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기독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만드는 미디어, 기독교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미디어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환대(hospitality) 혹은 친선(friendship)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증언(witnessing)의 관점, 세 번째는 예배적 관점입니다.

쟁도 다루고,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인종말살도 다루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백만 명이 죽었던 비참한 사건이었죠. 책의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런 폭력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목격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면서 증인으로 사는 길을 고민한 거죠. 세 번째 파트는 진리와 화해라는 장이에요. 가령 남아공에서의 한 미디어 종사자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그가 어떤 식으로 “진리”를 잘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인종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보여 주었지요.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인터넷 세계의 테러리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다

교적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일반 저널리스트들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비난하거나 폄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을 너무 예리하게 나눌 필요도 없고요. 일반 미디어 종사자들을 향해 적절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도움과 격려도 있어야지요. 사하라 사막 이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중동지역 등에서 일하다가 죽어간 저널리스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아요. 혹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해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권력자들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일종이라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미디어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갈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이 누구나 리포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미디어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미디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건 매우 재미있는 일입니다. 미디어는 사실 천천히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에 때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인쇄 기술의 발달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인쇄술 덕분에 루터의 목소리는 더 크고 멀리 퍼질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종교개혁도 당겨질 수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쇄 기술이 종교개혁을 움직이는 힘이었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기술이 발전했죠. 라디오, TV,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 등.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과거 미디어의 전환점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컸던 반면,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서는 교회가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요. 나름 힘을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죠. 종교가 지배하는 과거보다는 나은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나요? 세상의 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정의와 평화, 화해가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지요.

아시아시피 한국은 지난 60여 년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천 미디어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단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아일랜드의 갈



등에 대해 얘기해 보지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대치해 온 두 사회집단의 문제는 과거 ‘적’들이 행한 만행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두 집단 모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 왔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편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해 보며, 각 구성원이 서로 다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와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 추구는 좀 전에 말한 증인으로서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만,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모든 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걸러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 남한과 북한도 하나가 될 것인데, 한 나라가 되었을 때

는 어떠한 기독 미디어 인으로 살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저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 직후, 기념 마라톤 행사를 취재했었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흥분의 도가니였거든요. 무거운 테이프 녹음기를 들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과 같이 달렸는데, 얼마나 새로운 느낌이던지요. 6개월 전만 해도 그 길을 걸으면 총 맞아 사살되었을 군사 지역. 그곳을 제가 뛰어다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은 '이야,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수도 있구나!'였어요.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계속 소망을 품고, 통일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화해하고 같이 평화를 이루어 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각종 사건이나 부패 등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정도가 과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는 현실과 다릅니다. 사회에서 부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그걸 다루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가 싶죠? 독재 국가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정부와 사회 모두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늘 좋은 면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주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 되죠. 부패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수의 문제임을 반증하면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뉴스에서 주요 인사들의 부패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일까요? 분명히 어둠의 거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으니, 그 뒤에 어떤 더 큰 문제가 있

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시대라는 요즘, 교회나 신학교가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의 'smart'가 반드시 똑똑함과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잠언 1장에서 가르쳐 주듯,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중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미디어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 때 중요한 세 가지는 기도와 소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독서를 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도 중요해요. 참,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스스로에 대해서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든 거예요.

젊은이들이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보다 좋은 점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요. 인터넷에서 만들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세대 간 신학(intergenerational theology)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어른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어른들만 청소년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거든요. 다만, 중독문제는 개인적인 사용보다는 커뮤니티와 가족, 그룹 중심의 사용 기반을 더 늘리고 방향을 잡아 가면 좋겠습니다.



류기철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조교수이다. 미국 캘빈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 신약학, 목회상담을 가르치고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회원으로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